

1014(금) 마가복음 5-8장 부활보다 십자가가 먼저다

“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”

(8:30/ 1:34,43, 3:12, 5:43, 7:36, 9:9)

마가복음에는 이런 독특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.

예수님의 정체/능력에 대해 발설을 금하는 명령들로

<메시아 비밀>이라 불립니다(Messianic Secret).

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

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

지극히 일부분이며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예수님은 본인의 진가를 다 드러내지 않으셨고,

진짜 사명도 아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.

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/사명을 오해했습니다.

(4:13,40, 6:52, 8:16, 9:10,32) 설부른 결론은 금물입니다.

십자가와 부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될 때

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

그림 전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(8:27-31).

박해 받는 성도들이 발견하고 싶었던 메시아,

말씀에서 찾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였을까요?

성경 속 무리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지 않았을까요?

예수님은 수난이 사명의 일부임을 일깨우십니다(13:13).

부활보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(8:31, 9:31, 10:33-34, 13장).

“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

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(10:38)”

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합니까?

❶ 십자가와 부활 아래에서 말씀들을 묵상합니까?

❷ 수난도 사명의 일부임을 깨닫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마가복음 5-8장